

민주, '李재난지원금' 검토...고차원적 문제에 고심

예산안에 끼워넣기 쉽지 않아 당과 사전조율 없어 우려 목소리 예산 순증하려면 적자국채 발행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

원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당장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반영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예들려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 발언이 당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불거졌던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감지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과세수가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20조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

라며 "대선후보가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당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 관계자도 "조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해도 가용 자원은 2조4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면 예산을 순증해야 하는 데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뿐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30~50만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두 달만이다. 당내에서는 당장 야당이 '대포 행위'라며 '포퓰리즘 프레임'을 들고나온 만큼 대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란의 불똥이 내년도 예산 이슈로 번지면서 정쟁으로 이어지면 여당으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바람에 예산이 갑자기 이슈가 됐다.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 문제도 덩달아 야당에 발목 잡힐 수 있다"며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일방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추가 추진은 이번 국회에서 100%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구상인 만큼 당내 논의는 물론 당정 간 협의를 거쳐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도권 대선 의원은 "대선후보가 한다고 하면 기재부가 아니라 기재부 할아버지라도 해야 한다. 앞

서 88%만 봤는데 육만 먹었지 무슨 효과를 봤느냐"며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이 후보 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 후보 측근인 한 의원은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 상향, 지급 대상 확대를 1~2 순위로 강조했고 그다음으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지, 12월이나 내년 1월 초 추경을 통해서 할지 등 예산의 기술적 문제는 당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가워 전체회의 개의 요구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여가워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당원투표율 50% 넘어 흥행몰이...윤-홍 유불리 안갯속

윤 "정권교체 희망했다" 홍 "당협위원장 오더 안 먹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투표가 투표율 50% 선을 넘어선데 이틀째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투표율은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54.49% (투표자 수 31만63명)를 기록했다. 투표 첫날인 전날의 43.82% 투표율에 이어 역대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당 내부에선 오는 4일까지 나올간 진행되는 당원투표가 종료되면 60% 선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경선 때를 보면 모바일 투표율 안하신 분들의 20~25% 사이가 ARS 투표를 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6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까지 나올간 모바일 투표(1~2일)와 ARS 전화투표

(3~4일) 순으로 당원투표를 진행한다. 기록적 투표율에 경선 주자들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앞다퉀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첫날 투표율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봤다"며 "후보가 되면 윤석열 개인이나 캠프가 집권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힘과 나아가야만 전체가 집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통화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홍준표에게 유리하다"며 "각 시도당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의 '오더'가 안 먹힌다고 한다. 그런 오더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신규 당원들이 30만명 가까이 들어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수도권이나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왔다"며 "저는 늘 개혁보수와 젊은 층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거기에 정책을 맞

춰와서 제가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성남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당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4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결에서 누가 거꾸로 공격당하지 않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역대급'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오리무중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연례대별 당원 구성, 투표 성향 등이 제각각이라 투표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65% 선을 기준으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희비가 갈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투표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구조이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좀 더 우세하면 구체적인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소환에 "범죄 몸통"尹 맹폭

민주, "시간 끌기" 철저조사 촉구 野 경선 겨냥 "尹 되면 더 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고리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손검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던 국민의힘 김용 의원보다 수준 떨어지는 발발으로 수사기관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야당 대선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심산"이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 검사에 대해 "법규위반처럼 여러 차례 미루고 피하다가 이제야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다"며 "말장구 권병우 시즌2가 재연되지 않도록 법 앞의 평등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과거 국정농단 관련 검찰 조사받을 때 팔짱을 끼고 있던 장면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범죄 몸통이 흑여야당의 후보가 돼 방탄 갑옷을 두르고 나타날지 모른다는 망상에서 하루속히 깨어나길 바란다"며 "국기문란 범죄는 반드시 역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

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약속한 세 개의 비단 주머니는 아무도 기억 못 하는 빈 주머니인 만큼 더는 공력을 낭비하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김용 의원 소환 조사를 포함해 증거인멸을 막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 (손 검사)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지지부진한 수사에 불꼬를 뜨고 실제적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저희는 윤 전 총장이 되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 쉽게 갈 수 있지 않냐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겨냥, "서너 달 버락치기 공부 해서 대통령 되는 일은 별로 없다. 윤석열은 실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 실수하는 후보고 경험도 없다"며 "검사 철학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정 철학은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연합뉴스

"호남 경제 살리고 공정·상식 구현할 후보"

윤석열 광주선거 캠프 지지 호소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광주지역 지지자들은 2일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구현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광주 지역 선거 캠프 위원장인 송기석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반드시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을 실천할 것이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들은 "호남의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진영의 정지로 먼 거리 싸움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는 물표를 쥐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호남의 정치도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부족함을 채찍질해 달라"면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중도 세력까지 모아서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만들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무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시(기간)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일일) 후 원서 등을 출력
구비서류 제출 (정답받은 또는 우편 제출)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 출력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형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일시	2021. 12. 7.(화) 10:00 ~	• 지원대학원(전국)에서 지정된 장소 (선분중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12. 22.(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